

# 설날 모래판 평정...영암군 민속씨름단 최강 포효



모래판의 '신홍강자' 영암군 민속씨름단 장성우가 14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열린 설날장사 씨름대회 하라급 결승전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 오창록이 용인 백옥쌀의 우형원을 3-1로 제압하며 하라장사에 등극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열린 설날장사 씨름대회 태백급 결승전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 허선행이 수원시청 문준석을 물리치고 태백장사에 오르자 포효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설날장사 씨름대회 3체급 석권 장성우 2년 연속 백두장사 등극 오창록 7번째 하라장사에 허선행 두번째 태백장사 올라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세 체급을 석권하며 최강팀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줬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창단 이래 처음으로 한 대회에서 3명의 장사를 배출했으며, 지난 2016년 수원시청이래 두번째로 한 팀에서 세 체급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모래판의 '신홍강자' 장성우(24·영암군민속씨름단)가 2년 연속 설날 씨름대회 정상에 오르며 돌풍을 이어갔다. 장성우는 14일 경남 합천군 합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승전(5전 3승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정경진(울주군청)을 3-1로 꺾었다. 지난해 설날 대회에 우승자인 장성우는 이날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개인 통산 5번째 백두장사 꽃가마를 탔다. 2019년과 지난해 천하장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포함하면 통산 7번째 장사 타이틀이다. 8강과 4강에서 김진(중평군청), 박정석(양평군청)을 차례로 제압한 장성우는 결승에서 개인 통산

11번째 백두장사에 도전하는 정경진과 맞붙었다. 첫판에서는 노련미를 앞세운 정경진이 밀어치기로 한 점을 챙겼다. 하지만 장성우는 두 번째 판에서 들배지기를 성공해 곧바로 균형을 맞췄다. 자신감을 찾은 그는 세 번째 판에서 안다리걸기로 정경진을 쓰러뜨려 전세를 뒤집었고, 네 번째 판 들배지기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창록(27·영암군민속씨름단)은 같은 대회 하라급(105kg 이하) 정상에 오르며 강자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오창록은 지난 13일 하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우형원(용인백옥쌀)을 3-1로 제압했다. 2017년 실업 무대에 데뷔한 오창록은 설날대회

에서는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획득, 개인 통산 7번째 하라장사에 올랐다. 16강에서 베테랑 손충희(울산동구청)를 2-0으로 꺾은 그는 준결승까지 상대에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랐다. 허선행(22)은 1년 3개월 여만에 태백장사 타이틀을 되찾았다. 허선행은 지난 11일 태백장사(8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문준석(수원시청)을 3-2로 물리쳤다. 2019년 실업 무대에 데뷔해 같은 해 11월 천하장사대회에서 생애 첫 태백장사에 올랐던 허선행은 이날 개인 통산 두 번째로 장사 꽃가마를 탔다. 8강에서 정찬우(부산갈매기)를 연속 안다리

쓰러뜨린 그는 4강에서 '신홍강자' 노범수(울주군청)마저 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 상대는 4차례 태백급 정상에 오른 바 있는 문준석(수원시청)이었다. 허선행은 첫판 안다리로 기선을 제압한 뒤 두 번째 판에서 들어 뒤집기를 성공해 2-0으로 앞섰다. 하지만 문준석이 세 번째 판과 네 번째 판에 각각 오금당기기와 밀어치기로 반격해 균형을 잡았다. 승부가 걸린 마지막 판, 문준석이 빗장걸기로 우승을 확정하는 듯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문준석의 왼쪽 무릎이 먼저 지면에 닿은 것으로 확인돼 허비가 갈렸다. 결국 허선행이 올해 첫 황소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영진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 배구 코트 '학폭 논란' 휘청

이재영·이다영 이어 송명근·심경섭까지...징계 수위 고민

배구 코트를 향해 쏟아진 환호가 일순간에 날선 비판으로 바뀌었다. 겨울철 인기 실내 스포츠 입지를 굳혀가던 한국프로배구 V리그가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소속팀은 징계 등 후속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른 구단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팀의 송명근과 이다영은 현재 팀 소속을 떠난 상태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졌고, 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인기와 비례해 이재영-다영 자매를 향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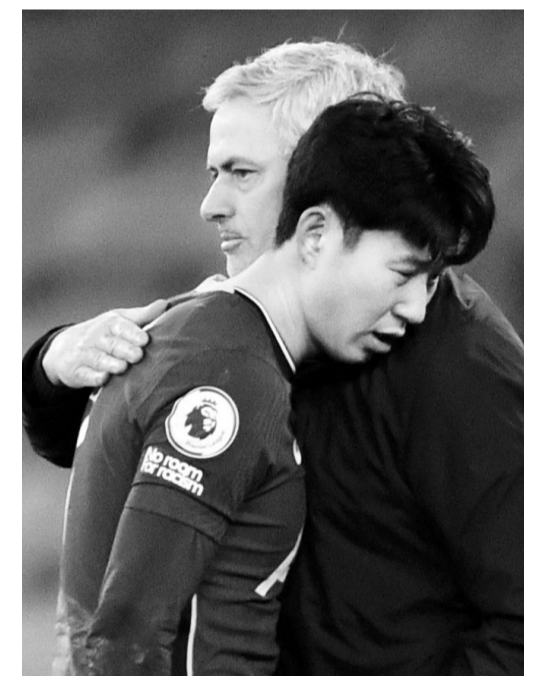
수위도 높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또 다른 피해자도 나온 터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남자부에서도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다. OK금융그룹 레프트 송명근과 심경섭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고교 시절과 중학생 때 A씨를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흥국생명과 OK금융그룹 구단 모두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관한 고민은 깊다. 흥국생명 구단도 이재영과 이다영이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외부에서 징계의 실효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구단은 징계와 재발 방지, 선수 보호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터라,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다. OK금융그룹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종목 내에 전례가 없어 처벌 기준도 불명확하다. 한국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기용)는 2018년 1차 지명 신인 안우진을 향해 학교 폭력 폭로가 이어지자, 정규시즌 50경기 출장 정지의 자체 징계를 했다. 아마야구를 이끄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안우진에게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했다.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KBO는 아마추어 시절 벌어진 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안우진을 징계하지 않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도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심경섭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민한다. 결국, 시선은 가해 선수를 보유한 소속 팀에 쏠릴 수밖에 없다. 당장 흥국생명은 16일, OK금융그룹은 18일에 흥국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 손흥민 발목에 피 나도록 뛰었던만...

풀백 역할까지 하며 고군분투 불구 슈팅 '0'...토트넘은 0-3 완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9)이 선두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상대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으나 팀의 0-3 패배를 막지 못했다. 손흥민을 지향하는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의 공격수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기록이지만, 그를 비난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토트넘은 사흘 전 치른 에버턴과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120분 혈전을 치른 끝에 4-5로 졌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3도움을 올렸다. 맨시티전에서도 손흥민은 분투했다. 토트넘이 FA컵 연장 승부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굵은 모습을 보인 가운데, 왼쪽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후반까지 내려와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토트넘 진영 깊숙한 곳에서 상대 공을 탈취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선수비'를 지향하는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의 전술을 비판할 때 '손흥민이 측면 공격수가 아닌 풀백(측면 수비수)처럼 보였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이날 손흥민의 움직임은 정말 풀백과 같았다. 손흥민이 공격 작업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 최전방의 케인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부지런히 연계 플레이에 나섰다. 부지런히 뛰 손흥민은 경기 막판 심각한 부상을 입을 뻔하기도 했다. 후반 33분께 맨시티 수비수 주강 칸델루와 공을 다투다 발목을 차여 넘어졌다.



맨시티와 경기가 끝난 후 모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발목은 피로 물들었다. 심판은 칸셀루에게 카드를 주지 않았다. 축구 통계 전문 '스카이스포츠닷컴'은 고군분투한 손흥민에게 무난한 평점을 줬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번째로 높은 6.3점을 받았다. 전방에서 부지런히 뛰 케인이 가장 높은 7.0점을, 오른쪽 풀백 잭 윙어가 그다음으로 높은 6.5점을 받았다. 스카이스포츠 방송국 평점에서도 손흥민은 케인(7점)에 이어 6점을 받았다. /연합뉴스

## 당구 이미래, 팔 통증 딛고 LPBA 3연속 우승

당구 선수에게 치명적인 팔 부상도 이미래(25·TS·JDX)의 고공 질주를 막을 수 없었다. 이미래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LPBA 챔피언십 2021' 여자부 결승전에서 오수정을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2(11-7 4-11 11-8 4-11 9-6)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래는 이번 우승으로 최근 3연속이자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3연속 우승과 통산 4승 모두 프로당구 PBA 출범 이래 남녀 통틀어 최초 기록이다. 이미래는 최근 교통사고로 팔과 손목을 다쳤다. 두 손으로 큐를 잡고 손끝의 미세한 감각으로 기술을 펼

쳐야 하는 당구 선수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 LPBA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이미래는 "3연속 우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학교 학업을 마치고마자 좋은 결과를 내서 스스로 대견하다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래는 이번 대회에서 아마추어 최강자로 불린 캄보디아 당구 여제 '스름 피아비, 김민아, 김가영 등 우승 후보들을 차례로 꺾고 세 역사를 썼다. 이제는 '왕중왕전' 격인 'PBA-LPBA 월드챔피언십'이 기다린다. 상급 랭킹 상위 선수들만 나서는 파이널 무대다. 남자부 32명, 여자부 16명이 나서는데 우승 상금이 각각 3억원과 1억원이다. /연합뉴스



PBA-LPBA 투어 제5차전 웰컴저축은행 웰빙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한 이미래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새해전야
2관	새해전야
3관	소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4관	소울
5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호라이즌 라인
6관	소울
9관	아이
7관 세네케를	드림빌드, 에니스트 씨프, 세자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호라이즌 라인
8관 세네케를	몬스터 헌터, 엘프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GAC기획공연 포시즌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